

## HEADLINE NEWS

###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환경배려 기업에게 금리우대혜택 제공 (동경)

일본 東京都는 이산화탄소 저감과 재활용에 힘쓰고 있는 기업의 환경배려를 인정하여 都内の 금융기업과 연계, 환경배려기업에 저리로 용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都内の 은행과 신용금고 등 약 80개의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참가 의욕이 높은 금융기관들과 함께 2005년 4월에 '환경파이낸스 동경 회의(가칭)'를 열고 기업의 환경배려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都가 도입을 목표로 하는 금융제도는 열섬(Heat Island) 대책과 토양오염대책 등 기업의 환경대책을 都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제도이다. 都는 연내에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203c3b0304a03.html](http://www.nikkei.co.jp/news/retto/20050203c3b0304a03.html))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근린재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의 노력 (보스턴)
- ②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NPO법인과 연계하여 위반건축에 대응 (요코하마)

### 도시환경

- ③ 도시의 공원면적과 걸거나 자전거타기와의 상관관계 (미국)
- ④ 도시공원 재정비 및 확충을 위한 공무원들의 도시 프로젝트 추진 (켄터키州: 루이즈빌市)
- ⑤ 친환경적인 자동차 구매 장려를 위해 연비율을 표시한 '색깔 등급표' 부착 추진 (런던)

### 도시교통

- ⑥ 대중교통으로의 환승을 유도하기 위한 'Park & Ride' 캠페인 실시 (동경)
- ⑦ 市전역에서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시애틀)
- ⑧ 혼잡통행료로 인한 지역상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런던)

### 사회복지문화

- ⑨ 음성사서함을 통해 노숙자에게 구인정보 제공 (테네시州 차타누가市)
- ⑩ 市청사를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 (오스틴)
- ⑪ 시민들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믿음의 이야기 '프로그램'을 우수 도서관프로그램으로 선정 (샌디에이고)

### 행·재정

- ⑫ 완전 자동화된 온라인 전자 인허가 서비스 실시 (시애틀)
- ⑬ 중소기업의 나노기술 활용과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나노테크놀로지센터' 설치 (동경)

### 1] 근린재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의 노력 (보스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의 한 주민공동체 모임이 근린재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에 Dudley Street의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Dudley Street 근린재활성화 운동'은 동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청소뿐만 아니라, 시와 협력하여 버려진 토지에 500채의 주택과 두 개의 커뮤니티 센터를 건설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러 개의 놀이터를 만들었다. 또한, Dudley Street 주민공동체 모임은 주민들로 비공식적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새로 건축되는 건물이 구조와 용도에 있어 근린에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시와 개발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The Boston Herald, 2005. 2. 27, "Residents work together to save their neighborhood")

### 2]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NPO 법인과 연계하여 위반건축에 대응 (요코하마)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를 위반하여 건축하기 때문에 주변지역과의 분쟁이 일어나거나 양호한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 요코하마시에서는 위반건축물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조기에 발견·시정할 수 있도록, 2004년 10월부터 건축사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NPO 법인과 연계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감시활동, 시민계몽세미나 개최 등을 하고 있다.

([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70/001-3.html](http://www.city.yokohama.jp/me/shimin/kouhou/670/001-3.html))

### ③ 도시의 공원면적과 걷거나 자전거타기와의 상관관계 (미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통행수단으로서 걷거나 자전거타기는 도시의 공원면적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미국 34개 대도시권 지역에서 조사한 50만 명의 응답자의 설문결과와 그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공원면적을 비교한 결과, 공원면적이 넓을수록 걷거나 자전거타기를 통한 육체적인 활동량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가 공원면적이 가장 높은 동시에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걷기와 자전거타기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혔고, 세번째로 넓은 공원면적을 가지고 있는 뉴욕시는 출퇴근과 같은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걷기와 자전거타기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시내 녹지비율은 높으나 도시확산이 심하고 공원면적이 낮은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는 레크리에이션 수단으로의 걷기와 자전거타기 비율이 낮은 도시 중 하나로 나타났다.

([www.medicalnewstoday.com/medicalnews.php?newsid=20455#](http://www.medicalnewstoday.com/medicalnews.php?newsid=20455#))

### ④ 도시공원 재정비 및 확충을 위한 ‘공원들의 도시’ 프로젝트 추진 (켄터키주: 루이즈빌市)

미국 켄터키(Kentucky)주의 중심도시인 루이즈빌(Louisville)市는 흩어져 있는 도시공원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2,000에이커에 이르는 땅을 새로운 공원들로 조성할 예정이다. 새로 추가되는 공원들은 기존의 공원들과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로 연결되어 시스템화된다. 향후 15년 동안 진행될 ‘공원들의 도시’ 프로젝트는 토지구입 및 공원조성에 우선 2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市와 환경보전을 위한 비영리단체들이 이미 상당량의 공원대상 용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市는 각종 기부금과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더 많은 공원대상 용지를 매입해 나갈 계획이다.

([www.courier-journal.com/apps/pbcs.dll/article?AID=/20050223/NEWS01/502230442](http://www.courier-journal.com/apps/pbcs.dll/article?AID=/20050223/NEWS01/502230442))

# 도시 환경/도시 교통

## ■ 세계도시동향 ■

### 5] 친환경적인 자동차 구매 장려를 위해 연비율을 표시한 ‘색깔 등급표’ 부착 추진 (런던)

영국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구매자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마다 연비율(Fuel Efficiency)의 정도를 나타내는 ‘색깔 등급표’를 부착하자는 계획을 2005년 2월에 발표했다. 색깔 별로 표시된 등급표는 차의 연비율과 일년 동안 사용될 연료비,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VED: Vehicle Excise Duty) 삭감여부 등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강제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에 있는 42개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정부를 대변하는 LCVP(Low Carbon Vehicle Partnership)와 공식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이 계획에 동의했다.

(Planning, 2005. 2. 18)

### 6] 대중교통으로의 환승을 유도하기 위한 ‘Park & Ride’ 캠페인 실시 (동경)

일본 東京都의 ‘Park & Ride’ 캠페인은 자가용을 주차하고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CO<sub>2</sub>의 배출량을 감소하는 등 환경을 배려하기 위한 시책이다. 2005년부터 민간주차장 20개소(약 930대 주차가능)가 ‘Park & Ride’에 참가하는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까지 합치면 40개소(약 3,200대 주차가능)가 된다. 都는 ‘Park & Ride’의 촉진을 위해 주차장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주차에 대한 할인 외에도, 월~금요일에는 평일 정기요금이 적용되는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통근·통학 등의 이용형태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www.koho.metro.tokyo.jp/koho/2005/02/kiji/park.htm](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5/02/kiji/park.htm))

### 7] 市전역에서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는 최근 Crown Hill 지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식 교통캠페인을 조만간 벌일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주거, 상업지역 등 市전역에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인쇄물,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점차 학생과 고령자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www.seattle.gov/news/detail.asp?ID=4985&Dept=19](http://www.seattle.gov/news/detail.asp?ID=4985&Dept=19))

### 8] 혼잡통행료로 인한 지역상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런던)

영국의 RICS(Royal Institute of Chartered Surveyors)의 ‘혼잡통행료로 인한 지역상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런던의 교통계획가들은 혼잡통행료 부과가 지역상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75%에 해당하는 소매상 응답자들은 물품배달이 어려워졌다고 말했고, 열 명 중 아홉 명의 비즈니스 종사자들은 혼잡통행료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RICS에 의하면, 소매상과 레저와 관련된 업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소매상, 식당, 바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전문직종과 사무실 종사자들은 다른 지역간의 이동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가 혼잡통행료를 5파운드에서 8파운드로 올리려는 런던市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Planning, 2005. 2. 11, “Impact of Congestion Charging on London Property by RICS”)

### 9 음성사서함을 통해 노숙자에게 구인정보 제공 (테네시주: 차타누가市)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Chattanooga)市는 연방정부로부터 220만 달러의 재정을 지원받아 만성적인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10개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를 위한 쉼터 제공과 기존 쉼터 시설의 개선,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에 대한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노숙자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노숙자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음성사서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노숙자들이 자신의 음성사서함에 녹음되는 구인정보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www6.lexisnexis.com/publisher/EndUser?Action=UserDisplayFullDocument&orgId=1593&topicId=21355&docId=I:253738125](http://www6.lexisnexis.com/publisher/EndUser?Action=UserDisplayFullDocument&orgId=1593&topicId=21355&docId=I:253738125))

### 10 시청사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 (오스틴)

미국 오스틴市는 시청사를 지역사회의 재능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주 찾아오는 랜드마크(landmark)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市는 이를 위해 2005년 2월 24일 시청사에서 시각예술 전시회를 열어 50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새롭게 단장된 시청사 공간에서 미적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www.ci.austin.tx.us/news/2005/schowcase\\_visualartistch.htm](http://www.ci.austin.tx.us/news/2005/schowcase_visualartistch.htm))

#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 세계도시동향 ■

### ④ 시민들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믿음의 이야기’ 프로그램을 우수 도서관프로그램으로 선정 (샌디에이고)

미국 샌디에이고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인 ‘믿음의 이야기: 샌디에이고의 종교와 다양성(Stories of Faith: Religion and Diversity in San Diego)’이 우수 도서관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로부터 상을 받았다. 이 상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우수 도서관프로그램을 제공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 수여된다.

‘믿음의 이야기’는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글쓰기 워크숍, 구술(口述) 역사 워크숍, 공개토론회와 영상제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었고, 수천 명의 샌디에이고 시민들을 비롯, 대학과 종교·문화단체도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서로의 신앙과 가치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는 샌디에이고 지역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www.sandiego.gov/public-library/pdf/pralamarshallc0205.pdf](http://www.sandiego.gov/public-library/pdf/pralamarshallc0205.pdf))

### ④ 완전 자동화된 온라인 전자 인허가 서비스 실시 (시애틀)

미국 시애틀시는 2005년 2월 9일부터 미국에서 최초로 완전 자동화된 온라인 전자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대부분의 전자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과 기업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온라인 인허가 서비스는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인허가를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동 발행되는 인허가증은 PDF파일 형태로 보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 서비스로 연간 약 12,000건에 달하는 시애틀 개발계획과의 인허가 사항이 온라인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www.seattle.gov/news/detail.asp?ID=4957&dept=40](http://www.seattle.gov/news/detail.asp?ID=4957&dept=40))

### 중소기업의 나노기술 활용과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나노 테크놀로지센터' 설치 (동경)

일본 東京都 나노테크놀로지센터는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기업수요를 반영한 공동연구와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東京 산업의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2월 21일 개설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나노기술에 관련된 신산업 창출과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기업, 都立산업기술연구소, 대학 등의 산·학·관·연 연계를 통해 수행한다. 나노테크놀로지센터는 이러한 기술에 필요한 고성능 기기류를 설치하고, 기기개방과 기술상담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나노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나노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지원함으로써 기업간 상호연계와 산·학·관·연의 교류, 연계를 도모할 계획이다.

([www.koho.metro.tokyo.jp/koho/2005/03/kiji/nano.htm](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5/03/kiji/nano.htm))